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⑫

雖有寶玩珍財 一將去 雖有豪華眷屬 一將去 雖有豪族眷屬 一將去 雖有豪族眷屬 一將去

이 무거운 곳에 태어나므로 전연 자유가 없다. 그래서 용이나 축생, 양민이나 천민으로 태어나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하였다.

是以凡有高識遠志之人 先須深觀三世業報 毫髮不差 先須深觀三世業報 毫髮不差

재산이 많으나 하나도 못가져 가고, 귀한 종족의 권속들이 있으나 한 사람도 따라와 보호해줄 이도 없다.

百丈和尚云 縱有福智多聞 都不相救

마음의 문 열리지 않으면 바깥경계 끌려 혼미에 빠진다

백장화상은 증유복지다문 도불상구 爲心眼未開 唯緣念諸境 不知返照

증불가귀 악수세연 유소시작 悉當觀察應作不應作 萬行無礙

그러므로 높은 식견과 원대한 뜻이 있는 사람은 먼저 삼세의 업보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야 도망할 곳이 없으니, 만일 지금의 인연을 어그러뜨려 마음을 닦지 못하면 뒤에 반드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니 참으로 마음은 비취보되 먼저 고요함으로써 생각을 다스리고, 다음에는 깨어 있음으로써 혼미함을 다스려야 한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금산스님

목포 목우암 주석

혼탁한 세상에서 올곧은 중심을 지니고 삶을 산다는 것은 수행이나 다름없다. 자기 안의 탐욕과 번뇌, 자기 밖의 혼돈과 무질서를 감당해 내기란 역부족인 일, 그러나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겠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다. 세간에 있어도 해탈을 향한다면 출세간이요, 출세간에 있어도 탐욕을 끊지 못한다면 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전심전력이 바로 불성찾기

“출세(出世)의 의미가 단순히 머리를 깎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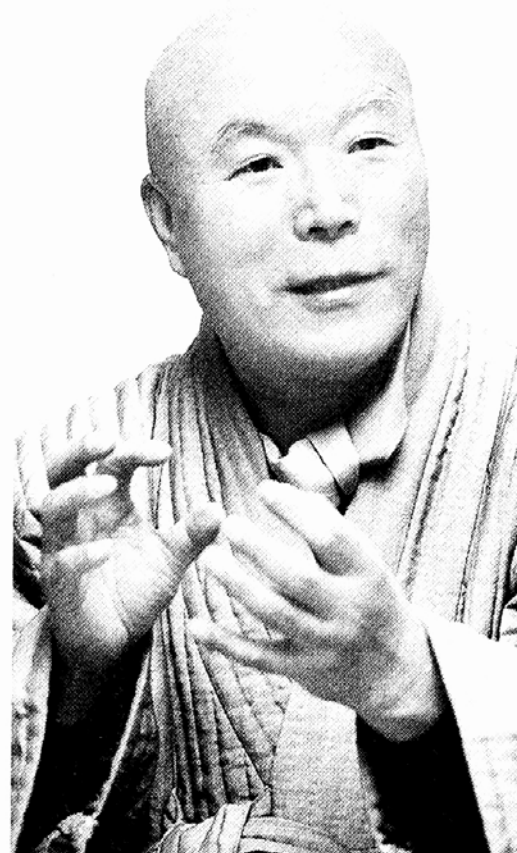
▲내 젊은 시절 얘기를 해 드리지요. 20대 초반까지 나는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무엇하나 명쾌해 보이는 게 없더라 말이에요. 기독교 사상에 접해보고, 사상가로 유명한 다섯 유명 선생을 찾아가 강의를 듣고 직접 만나 얘기도 해보았지만 의심을 품지는 못했어요. 무슨 큰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

스님이 사미계를 받은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게송이 있어요. ‘선재대장부(善哉大丈夫) 능유세무상(能了世無常) 기욕취열반(棄欲就涅槃) 희유난사이(希有難思易)라. ‘착하도다 대장부여, 능히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았구나. 욕심 버리고 열반을 취하니, 헤아리기 힘든 어려운 일 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스님이 사미들의 구도열을 격려하기 위해 내리는 말씀이지만 바로 여기에 ‘출세’의 참 뜻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세상과의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출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가는 자신을 부정하고 상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근원과 불법의 이치를 알아 해탈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일념을 따를 때 비로소 출가했다고 이룰 수 있어요.

—세속에 있을 때보다 산에서는 출세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만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뜻만 산에서 사셨는데 그게 어디 돌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진리라는 평범한 생각, 바로 그런 것들이 산에

- 1928년 생
· 56년 월정사서 출가, 지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비구계 수지. 이후 31하 성만
· 63년 월출산 도갑사 주지
· 64년 조계종 감찰원 감찰국장, 조사국장, 조사부장, 조사원, 화엄사 주지
· 67년 지리산 금강선원장
· 68년 통리산 태인사 금강선원장
· 91년 내장산 내장사 백련선원장
· 99년 미주 삼보사 금강선원장
· 현재 목포 송달산 목우암에 주석



스님에게 기도와 선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스님이 기도를 끝내고 가면서 공부 잘했다고 하더군요.

산에서 사는 사람은 고집이 없습니다. 산이 좋아 산에 사는 것뿐이니까요. 선을 했다고 해서 선이 좋다고 하지도, 교를 했다고 해서 교가 좋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 돌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진리라는 평범한 생각, 바로 그런 것들이 산에

은 공간과 형태에 의해 그 의미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인도의 유마거사나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부설거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식들은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출가자 못지않은 수행으로 높은 공덕을 쌓았습다. 어느 누가 이 선지식들을 세간의 범부로 여겼습니까. 형식에 얽매인 출가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출가자가 아니요, 형식에 구애없이 진리를 좇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수행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세간이 어디에 있고 출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마음과 행(行)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가 자체가 곧 수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모두 선이고 공부입니다. 생활 속에 이런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은 시대적으로 참선이 스님의 전유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 기류를 뚜렷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삼매(一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의 경지라면 세간에 있다 해도 출세간이나 다름없지요.

‘일상삼매’란 비유를 하자면 ‘여묘포서(如猫捕鼠)’와 같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사냥할 때 한 눈을 팔지 않고 온 사력을 다해 쥐구멍을 노립니다. 고양이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쥐사냥은 실패하게 됩니다. 일상삼매란 바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라는 그 마음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일행삼매’는 ‘여계포란(如鷄捕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계란은 오래 품고 있어야 병아리가 됩니다. 함부로 퍼덕거리면 온도와 시간이 맞지 않아 부화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지금 천지 우주를 부처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법다움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돌아켜보면 ‘출세(出世)’라는 것

아바타 합동코스 <뜻대로 사는 길> 若人欲了知三世一切法 應觀心造... 1. 일 시: 2000년 12월 23일(토) - 31일(일) 8박 9일 2. 장 소: 봉인사 한길 정진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304) 3. 참 가 비: 18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100만원(숙식포함) 4. 신청문의: 서울 해인 아바타 센터: 011-733-9379, 02-579-9379

3개월 특별속성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범음범패)수련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4기 불교의식(범음범패)을 3개월 속성으로 수련하실 분을 특별 모집합니다. ●수련과정: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교육방법: ① 출강...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교재 및 테이프, 기타 교육자료 우송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서·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혜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현공편(삼보통정·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정 등) ④ 제의식편(천도제·49제·시타리·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접수마감: 2001년 1월 4일까지(현재 접수중) ●접수방법: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개강일시: 2001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전통의식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연밭(연꽃씨)을 드셔 보세요! 연밭은 풍부한 녹말이 다량 함유되어있으며, 아미노산 조성분인 리신이 상당량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 연꽃 장식이 출토되었고, 불교 전래 이전의 고대 인도에서는 이미 다산(多産)이나 생명연장(生命延長)의 상징 또는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청순한 꽃을 피우는 연(蓮)을 극락정토(極樂淨土)라 하는 견해도 있어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味甘無毒養氣力 除百疾補五臟 止渴益神安心 多食令人喜 연밭은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기력을 돕는다 인체의 온갖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오장을 보호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정신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 동의보감 방맥편 중에서 -- 1KG포장속에는 연꽃씨의 겉과 속의껍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속의 피관심을 빼내어 원형 알곡 그대로 모양을 살렸습니다. 제품을 충분히 물에 불려신후 사철이나 각가정에서 밥지으실때, 혹은 연지죽, 연지차로 훌륭한 사철음식을 만들어 잡수실수 있습니다. 1KG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40여개의 연꽃봉오리가 사용되며, 구입하신 제품속에는 사용법 및 연꽃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안내 1KG 15,000원 3KG 35,000원 5KG 55,000원 각각 포장 판매 <택배 포함 가격> ● 구입문의: 인창 물산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49 전화 (02) 323-2562 예금주: 기업은행 (377-009547-04-018) 여진구 농협 (217028-52-013565) 여진구